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한-UAE CEPA 타결

중동 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기대

한-UAE CEPA, 23년 10월 14일에 최종 타결!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은 23년 10월 14일에 최종 타결되었고, 올해 4월 협정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견 검토를 통해 협정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양허 품목

원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대추야자

자동차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철도차량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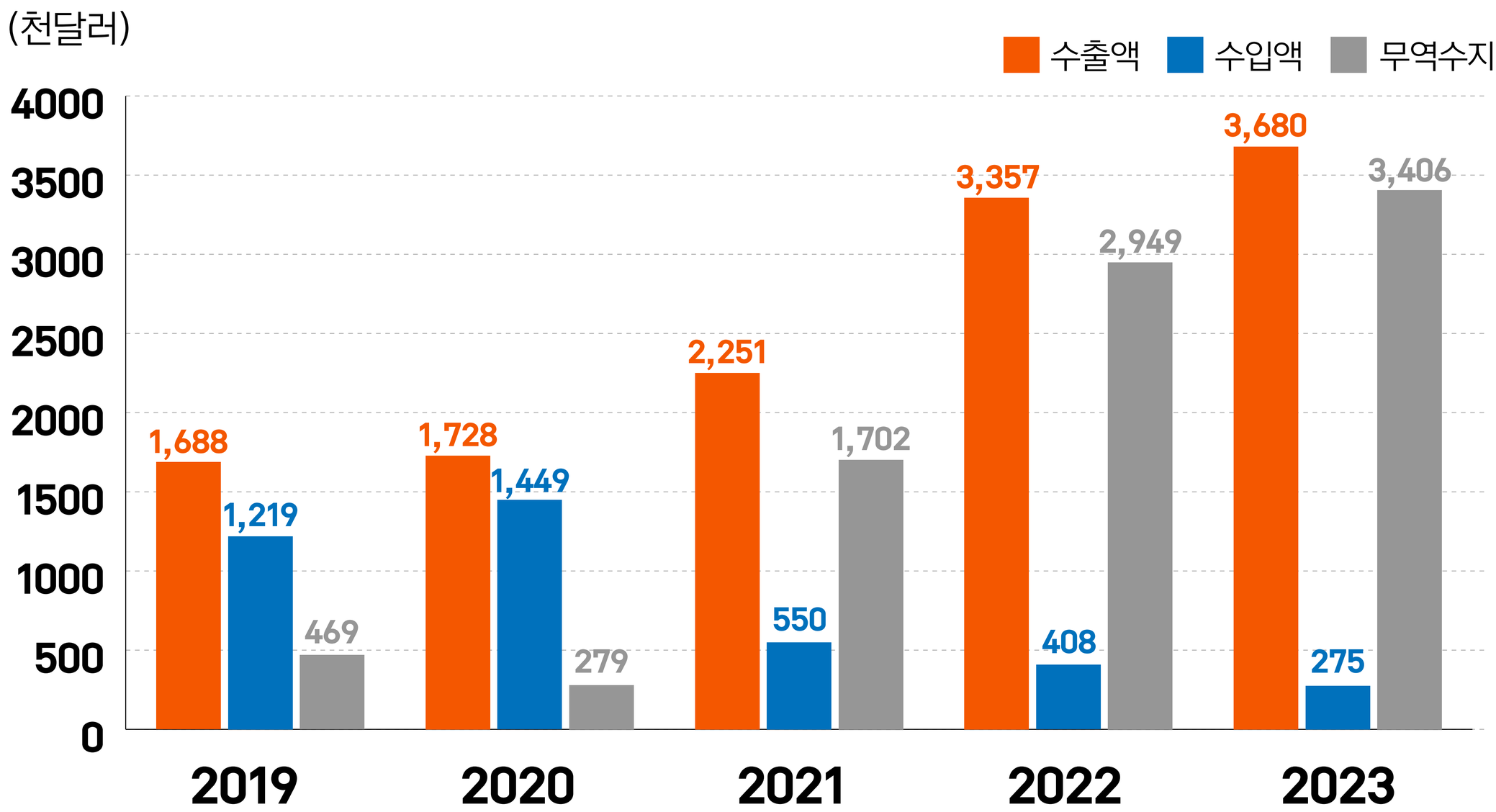
에어컨

한-UAE CEPA는 상품·서비스·정부조달 등
총 19개 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8%, UAE측은 91.2%가 최대 10년 내
관세 철폐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양허 품목은 UAE산 원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대추야자 등이며, UAE측의 주요 양허 품목은 한국산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철도차량부품, 에어컨 등입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332만 달러 수준입니다. 수산물 수출액이 254만 달러,
수입액이 78만 달러로 매년 약 176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UAE 수산물 교역 현황>



출처 : 소금 제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2023년 수산물 수출액은 368만 달러, 수입액은 27만 달러입니다.
이 중 주요 수출품목은 김(47.0%), 킹크랩 및 대게(17.8%),
기타어류(10.0%), 넙치(7.0%) 등이며, 수입은 갈치가 9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치

양허대상 제외

+ 양허대상 제외 품목

새끼뱀장어	실뱀장어	참돔
냉동 넙치	가자미	터벗
청어	정어리	냉동 흰다리새우
냉동 갑오징어	오징어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수단 확보

특히 UAE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갈치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새끼뱀장어(양식용), 실뱀장어(양식용 제외), 참돔(활어),
냉동 넙치·가자미·터벗·청어·정어리, 냉동 흰다리새우,
냉동 갑오징어 및 오징어 등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UAE는 중동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써
향후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점 수출 품목인 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동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민감 품목인 갈치에 대해서는
FTA 발효 이후에도 수입 증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